

현대차그룹, AI 전환 ‘성과’… 사내 플랫폼 이용자 3만명

일반·연구직 약 80% 업무에 적용
차량번호 판독로 연 52억 비용 절감
새만금 500MW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자율주행 기반모델 직접투자 확보
축적 역량 바탕 피지컬AI 확산 준비

현대자동차그룹이DX(디지털 전환)와 AX(인공지능 전환)를 넘어 피지컬AI를 전사적으로 확산한다.

현대차는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에서 ‘AX 성과 발표회’를 열고 성과와 새만금 데이터센터 투자 등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현대차·기아 ICT담당 진은숙 사장은 “AI는 기업이 활용해야 할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얼마나 빠르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해 조직의 성과로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이 아니라 가장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 ‘H Chat Pro’는 지난 7월 기준 사용자 3만명을 넘어섰다. 현대차·기아 일반·연구



현대차그룹 AX 성과발표회에서 진은숙 현대차·기아 ICT담당 사장이 발언하고있다.

/이승혁 수습기자

직의 약 80%에 해당한다.

이런 확산의 배경에는 정의선 회장의 의지가 강했다. 진 사장에 따르면 정의장은 “코딩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직접 코딩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기술 변화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라며 “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

다”고 말했다.

빠른 확산에는 리스크도 따랐다. 지난 6월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의 대화에서 나온 일화다. 진 사장에 따르면 그룹 내 한 직원이 만든 AI 에이전트가 사내 문서 5000건을 한꺼번에 삭제하는 사고가 발생해 3일간 업무 차질이 빚어졌다.

진 사장은 “어떤 기업의 AX가 어디까

지 갔는지 알고 싶으면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면 된다”며 “아무 사고도 없었다는 건 그만큼 시도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황 CEO도 뚜렷한 해법은 없으면서, 검증되지 않은 AI 에이전트는 폐쇄망에 가둬 동작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수치로 나타난 성과도 뚜렷하다. 차량

식별번호 자동 판독 서비스는 국내의 공장 기준 연간 52억4000만원을 절감했고, 고객 리뷰 자동 분류·답변 솔루션은 처리 시간을 35분에서 5분으로 줄였다.

이어 중장기 계획도 공개했다. 전북 새만금에 500메가와트(MW) 규모 부지를 확보해 2029년 말에서 2030년 사이 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한다.

자율주행 등 상품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역의 기반모델은 직접 투자해 확보하고, 백오피스 업무에는 외부 기술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엔비디아와의 제휴로 확보하고 있다. 차량 개발기간 단축도 추가 과제로 꼽았다. 중국차에 비해 긴 개발기간을 요소별로 줄이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AI로 어떻게 관리할지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 사장은 “AX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와 운영 경험, 실행 역량이 다가올 피지컬 AI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기·LG이노텍, AI부품 수요에 증설 경쟁

MLCC·FC-BGA 공급난 2028년 지속
삼성전기, 텐진공장 풀가동·계약 확대
LG이노텍, 베트남 증설·투자 검토

인공지능(AI) 서버 투자확대에 적응세 라믹커패시터(MLCC)와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등 고부가 전자부품 수요가 거세지고 있다. MLCC는 주요 업체들의 공장이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FC-BGA도 AI 서버에 이어 범용 서버와 스위치 IC까지 수요가 번지는 모습이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생산능력 확대와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의 중국 텐진 MLCC 공장은 최근 풀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I서버용 고용량 제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삼성전기는 하이퍼스케일러와 주요 반도체 업체 등 10여개 고객사와 MLCC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하고 추가 계약도 논의하고 있다.

FC-BGA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삼

성전기는 지난2분기부터 북미 신규 빅테크 고객사에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용 FC-BGA 공급을 시작했다. 베트남 생산 법인에는 12억달러를 투자해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LG이노텍도 베트남 하이퐁반도체기판 공장 증설에 착수했다. 무선주파수 시스템 인패키지(RF-SiP)와 FC-BGA 등에 LT A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추가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위치 IC용 FC-BGA 양산에 나설 예정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 여력은 빠듯하다. K B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3분기 글로벌 빅테크의 메모리와 AI 기판 수요 총족률이 60~7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 초고해상도 모니터로 의료 B2B 공략

11MP 화면에 CT·MRI 등 동시 확인
FDA 승인 받아 글로벌 시장 확대 추진

LG전자가 한 화면에서 여러 의료 영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진단용 모니터를 앞세워 기업간거래(B2B) 의료기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40형 진단용 모니터(모델명 40HT513D)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제품은 21대9 화면 비율의 곡면 IPS 블랙 패널을 적용했다. 5120×2160 해상도와 총 11메가픽셀(MP)을 구현해 기존 3메가픽셀급 모니터 3대로 처리하던 업무를 하나의 화면에서 수행할 수 있다.

한 화면을 세 구역으로 분할해 서로 다른 영상 소스를 띄우는 ‘3PBP(3 Picture By Picture)’ 기능도 탑재했다. 엑스레이

나 CT, MRI 영상과 전자의무기록(EMR) 등 여러 자료를 한 화면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여러 대의 모니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화면 간 경계와 시선 이동을 줄였다. 실제 의료진의 사용성 평가에서도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신제품에는 하나의 키보드와 모니터, 마우스로 두 대의 PC를 제어할 수 있는 ‘KVM 스위치’도 내장했다. 모니터의 밝기와 명암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캘리브레이션 센서는 탈부착 방식으로 적용해 유지보수 편의성을 높였다.

소프트웨어(SW) 기능도 강화했다. 관심 영역을 밝게 강조하고 나머지 화면을 어둡게 처리하는 ‘포커스 뷰(Focus View)’와 세포 등 병리학적 세부 구조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패슬로지(Pathology)’ 모드를 지원한다.

/차현정 기자

유허기유 공급난에 정유사 호황 반사이익

7월 수출가 17% 상승 스프레드 최고
美 수출 90% 급증 공급난 수혜 지속

중동발 공급 차질로 국내 정유사의 유허기유 호황이 3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정유사 실적을 끌어올린 데 이어 7월에는 한국산 유허기유 수출가격과 스프레드가 추가 상승했다. 미국향 수출도 크게 늘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반사이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2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산 유허기유 수출가격은 배럴당 294달러로 전월 대비 17% 급등했다. 같은 기간 유허기유 스프레드의 비교 기준인 B-C유 가격은 7% 하락했다. 이에 따라 스프레드는 전월 대비 25% 확대된 배럴당 21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배럴당 70달러 초반이던 스프레드는 올 2분기 160달러대로 뛴 데 이어 7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

유허기유는 자동차와 산업용 기계 등에 쓰이는 유허유의 핵심 원료로,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이다. 가격뿐 아니라 물량도 강세다. 지난 5~7월 한국산 유허기유의 미국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90% 급증했다.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 차질이 있다. 카타르 쉘(Shell)의 Pearl GTL Train 2가동 차질로 고성능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에 쓰이는 그룹III 유허기유 공급이 줄었다.

그룹III는 미국석유협회(API)가 5개 등급으로 분류한 유허기유 중 점도지수가 높고 황 함량이 낮은 고급 제품이다. 쉘은 해당 설비 복구 시점을 내년 1분기 말로 제시했다. 공급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그룹III 경쟁력을 갖춘 SK엔트루와 에스오일 등 국내 정유사가 대체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다.

중진공 中 中小 재직자 AI 역량 강화

산업특화 인재 양성 본격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추가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산업특화 AI 계약학과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AI아카데미’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 1월 경기 안산 한국공학대대학교 산학융합관에서 AI아카데미 1차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달 22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AI아카데미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재직자의 AI 활용 역량을 높임과 동시에 산업특화 AI 계약학과와 본격적인 학위 운영에 앞서 AI 활용 교육 모델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특화 AI 계약학과는 산업 전문성과 AI 역량을 동시에 갖춘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배터리 3사, ESS 3차 입찰서 수주전 재점화

1조 안팎 2028년 공급 물량 확보
가격 하한제·화재 안전성 반영 주목

제3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 시장 입찰을 앞두고 국내 배터리 3사의 물량 확보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선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한 만큼 업계가 건의해 온 가격 하한제와 화재 안전성 등 비가격 평가 확대가 이번 입찰 기준에 반영될지가 수주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공고문에 답을 평가 방식과 사업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8년부터 전력 계통에 공급할 ESS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 규모는 제2차 시장과 비슷한 1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배터리 3사는 제1·2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시장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한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를 앞세운 삼성SDI가 전체 물량의 76%를 확보했다.

제2차 시장에서는 SK온이 전체 물량의 50%를 수주하며 가장 많은 물량을 가져갔다. 해외 ESS 시장에서 공급 실적을 쌓아온 LG에너지솔루션도 제3차 시장에서 적극적인 수주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가장 큰 부담은 가격이다. 제2차 시장에서 업체 간 물량 확보 경쟁이 입찰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수주를 늘리더라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배터리 업계는 과도한 저가 경쟁을 완화할 가격 하한선을 마련하고 화재 안전성과 국내 산업 경쟁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관희 기자 wkh@